

“2020년 어르신 건강은 ‘치매안심’ 부터 시작하세요”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마치고 본격 운영...최첨단 장비 갖춰

‘365일 이음-배움’ 프로그램 원스톱 치매관리서비스 운영 호응

해남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기억 365일 이음-배움’ 프로그램으로 군민 치매안심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신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연면적 872.07㎡, 지상 2층 규모로 진단검사실과 치매환자 및 가족쉼터, 가족카페 등과 함께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일상생활 체험 훈련 프로그램실과 대규모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돼 있다.

군은 치매센터 신축에 맞춰 치매환자쉼터와 가족교실, 가족카페, 자조모임, 가상훈련센

터, 힐링프로그램, 뇌인지 체형 프로그램(치매예방, 인지강화),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등 9개 프로그램을 ‘365일 이음-배움’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의 인식차인 쉼터 운영을 비롯해 가족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두뇌 건강을 향상시키는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일상생활 체험훈련 프로그램실은 최첨단 VR장비를

갖추고, 전문요원인 작업치료사를 배치해 일대일 치료를 통해 치매환자들의 일상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가상(VR)훈련 프로그램은 치매환자가 집안 청소하기, 시장보기 및 요리하기, 계산하기 등을 가상현실에서 학습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인지저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주민 등이다.

치매안심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상담, 조기 진단과 같은 통합관리서



비스 제공이 가능해 집으로써 고령인구 30%가 넘어선 해남군의 치매예방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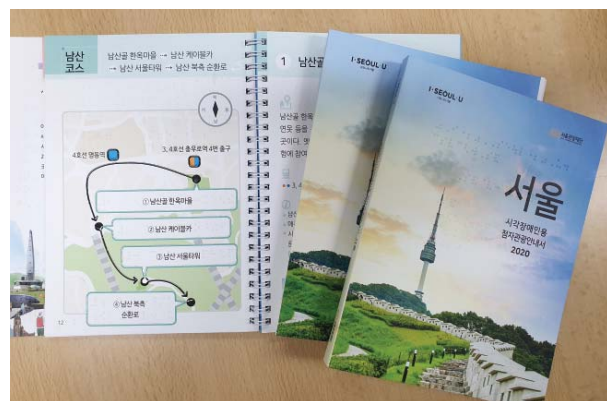
군 관계자는 “어르신 건강의 가장 큰 두려움인 치매 예방을 위해 첨단 시설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게 됐다”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들의 돌봄과 따뜻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시각장애인도 가이드북 하나로 서울여행 가능할까

서울관광재단, 점자관광안내서 발간



시각장애이용 점자관광안내서. 서울관광재단 제공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이 ‘2020년 시각장애이용 점자관광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평소 점자로 표기된 관광

안내서가 부재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시각장애이용 점자관광안내서’ 1000부를 제작했다.

서울 여행지 중 시각장애인이 비교 적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적합한 관광지 18곳을 선정하여 총 57개의 코스로 실었다. 특히 기존의 비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를 그대로 점자로 옮긴 것이 아닌, 시각장애인 전용 관광코스를 개발

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제작된 ‘시각장애이용 점자관광안내서’라는 점이 특징이다.

코스 개발 시 점자블록 및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유무와 이동 시 큰 제약이 없는 관광지를 엄선해 선정했다.

관광지 소개 및 이용 안내뿐만 아니라 코스의 동선도 점자로 표기해 시각장애인이 관광지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재단 측 설명이다.

5개 대표 코스는 △광화문 △덕수궁 △남산 △돈의문 △문화비축기지 등으로 나뉘며, 코스 중 경복궁과 덕수궁,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도보관광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위한 수학기호 음성변환 서비스 시작

국립장애인도서관, 초·중·고등1학년 교육과정 기반

장애인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점자를 읽지 못해 소리로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서비스가 시작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정기애)은 6일부터 수식 및 수학기호의 음성변환 규칙을 제정하고 수학 관련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의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 등에서는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수식 읽기 표현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다. 이런 이유로 제작자가 임의로 수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학 학습 시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도 또한 많았다.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용어를 기반으로 매스스피크(MathSpeak) 표준규격을 접목해 수식의 음성변환 규칙을 정의했다.

서비스는 교육과정(초, 중, 고)과 독음의 수준(간략 읽기, 상세읽기)을 고려해 마련됐고,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기하’ ‘집합과 명제’ ‘함수’ ‘확률과 통계’ 6개 영역으로

분류됐다.

도서관측은 이 서비스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의 편의성도 고려해 제공되며, 수식 표현의 모호성 해결 및 대체자료 제작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이하 범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향후 대학수학 범위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포용적 교육 기회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올타리

올타리는 그 만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올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컨설팅',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우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FD 한국농어촌공사